

2024년 4/4분기

#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2024. 9.



# < 조사개요 >

## 1. 조사명

- 2024년 4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## 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## 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※유효 응답 업체 250개체)

## 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## 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## 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## 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# 1

# 2024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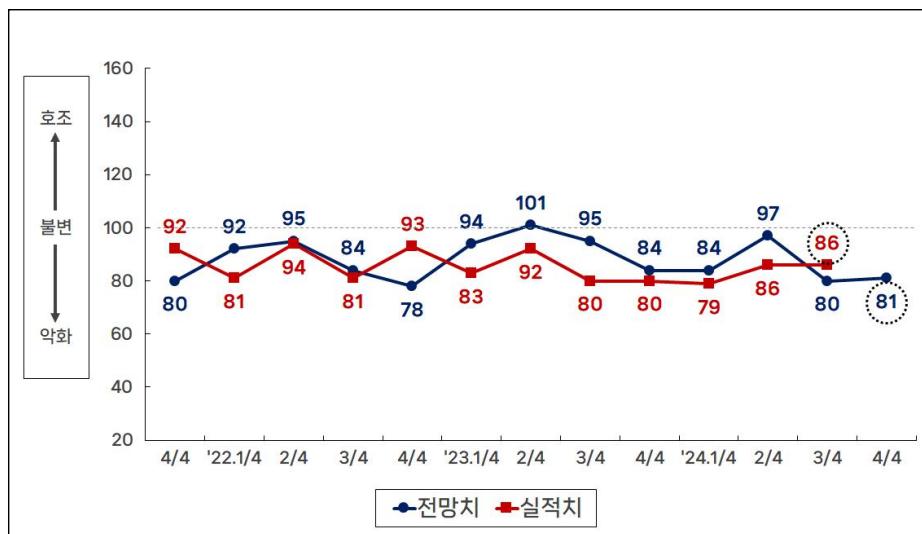
## ■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81, 고금리 · 고물가 장기화와 내수부진 등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경기 부진 전망

### ○ 2024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‘81’로 전분기(80) 대비 보합

- 2024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고물가 · 고금리, 수출둔화,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기 불안요인이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준값(100)을 하회한 것으로 분석됨
- 형태별로 1)수출기업은 ‘98’, 2)내수기업은 ‘76’으로 나타남
- 특히,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소비위축, 내수판매 감소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 대비 내수기업의 4분기 경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

### ○ 2024년 3/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‘86’으로 전분기와 동일

〈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〉



1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 
2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 미만을 차지하는 기업

○ 2024년 4/4분기 경기불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경기악화 불안감 상존

- 전분기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가 55.2%(138개사), 경기호전을 예상한 업체가 12.8%(32개사)에 불과한 반면 경기 악화를 예상한 업체는 32.0%(80개사)

< 2024년 4/4분기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32	138	80	250
구성비	12.8	55.2	32.0	100.0

## 2 경영 부문별 전망

■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소비위축, 고물가·고금리 장기화 등 경영 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매출,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부진 전망

○ 매출(82)

-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, 소비위축 등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및 섬유·의복 제조업 등 소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출 부진 전망

○ 영업이익(83)

- 환율변동성 확대,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이익 부진 전망
- 특히, 자금조달비용 및 공공요금 부담 증가,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비용증가로 지역 제조업 부담 가중

## ○ 설비투자(90), 자금사정(90)

- 고금리 장기화, 내수부진, 높은 환율변동성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 및 자금사정 부진 전망
- 특히,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조선·기자재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설비투자 및 자금사정이 부진할 전망

### 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4.2/4분기	'24.3/4분기	'24.3/4분기	'24.4/4분기
체감경기	86	→	86	80 → 81
매출액	85	→	86	93 → 82
영업이익	81	→	86	84 → 83
설비투자	88	→	89	96 → 90
자금사정	86	→	86	93 → 90

## 3 주요 업종별 전망

### ■ 화학·고무, 조선·기자재 제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경기 부진 전망

## ○ 화학·고무(115)

- 국제유가 하락 등 원자재 가격 부담 감소와 타이어 등 합성고무 및 도료 수요 증가로 업황 호전 전망하는 한편, 높은 해상운임 지속 및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한 원가 상승부담 상존

## ○ 신발(67), 의복·모피(67)

-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신발 및 의복 판매 감소로 '24년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경기부진 전망

## ○ 음식료품(60)

-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위축, 인건비 및 판관비 부담으로 업황 부진 전망

## ○ 전기 · 전자(95)

- AI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변전 · 변압기 관련 제조업을 중심으로 3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나 고금리와 환율변동 등의 영향으로 4분기는 경기부진 전망

## ○ 자동차 · 부품(71)

- 자동차 내수판매 감소,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으로 경기부진 전망

## ○ 조선 · 기자재(100)

-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및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인한 업황 호조를 보였으나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등의 영향으로 업황 부진에 대한 전망도 존재하면서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치인 100을 기록

### 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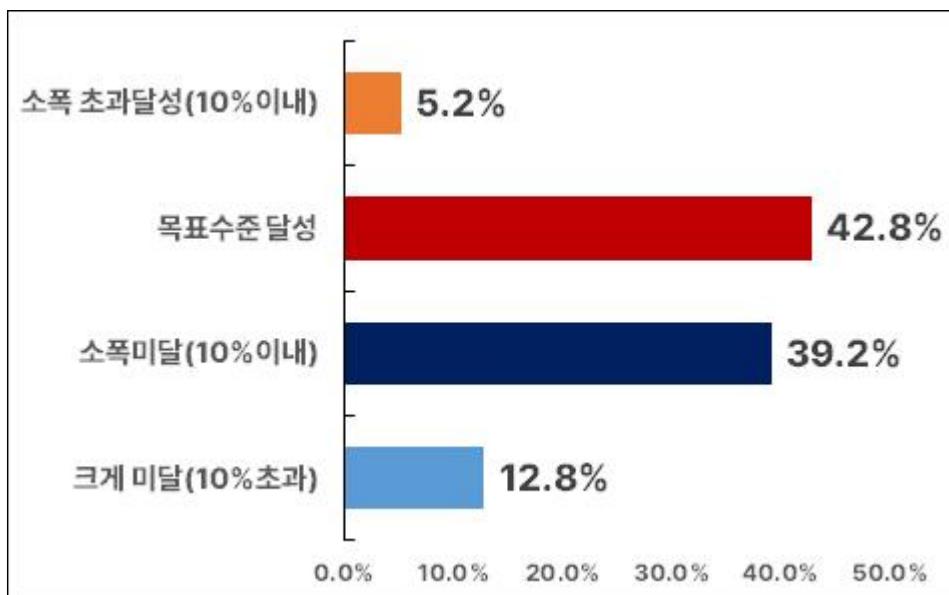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전망	
	'24.2/4분기	'24.3/4분기	'24.3/4분기	'24.4/4분기
음 · 식료품	44	→	80	63 → 60
섬유제품	69	→	107	94 → 86
의복 · 모피	53	→	60	67 → 67
신발제품	73	→	67	47 → 67
화학 · 고무	96	→	85	67 → 115
1차금속	88	→	72	96 → 64
조립금속	100	→	71	95 → 57
전기 · 전자	119	→	110	106 → 95
기계 · 장비	92	→	103	104 → 93
자동차 · 부품	83	→	75	90 → 71
조선 · 기자재	103	→	110	100 → 100

## 4 실적 목표

○ 연초 계획한 올해 실적(영업이익 기준)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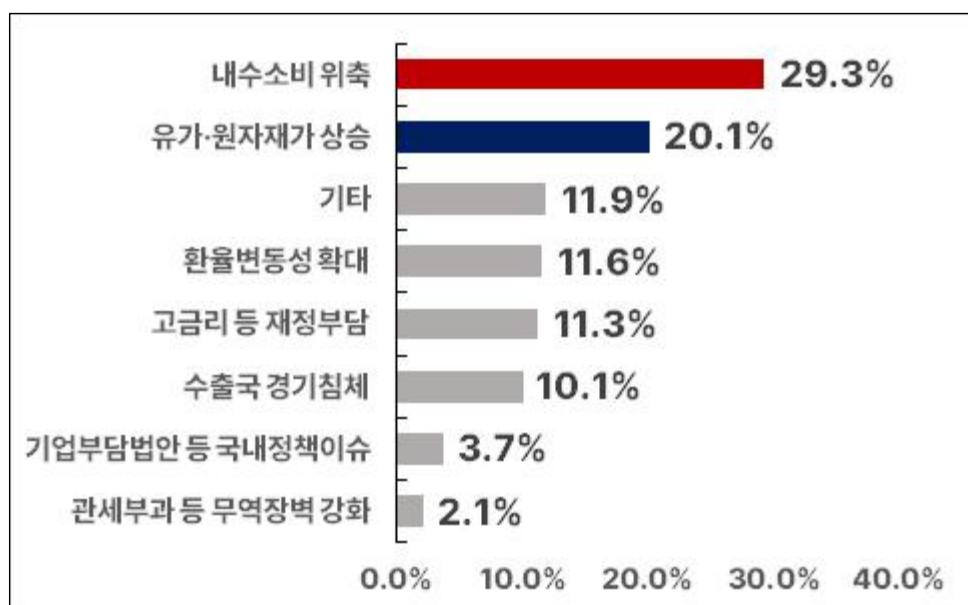
- 크게 미달(10%이상) 12.8%, 소폭 미달(10%이내) 39.2%, 목표수준 달성(42.8%), 소폭 초과달성(10%이내) 5.2%로 집계
- 금년 실적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52.0%로 전년동기(47.6%) 대비 4.4%p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고물가 및 내수부진 장기화, 금리인하 지연 등 경영환경 악화가 지역기업 목표실적 미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
- 특히, 가계부채 부담 증가,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음식료품, 의복 등 소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적미달을 전망

<2024년도 부산지역 제조업 목표실적 달성 전망>



- ‘24년 4분기 실적달성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‘내수소비 위축’
- 실적달성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‘내수소비 위축’ (29.3%), ‘유가·원자재가 상승’ (20.1%), ‘환율변동성 확대’ (11.6%), ‘고금리 등 재정부담’ (11.3%), ‘수출국 경기침체’ (10.1%), ‘기업부담법안 등 국내정책이슈’ (3.7%), ‘관세부과 등 무역장벽 강화’ (2.1%) 등의 순

<‘24년 4분기 실적달성 주요 리스크 요인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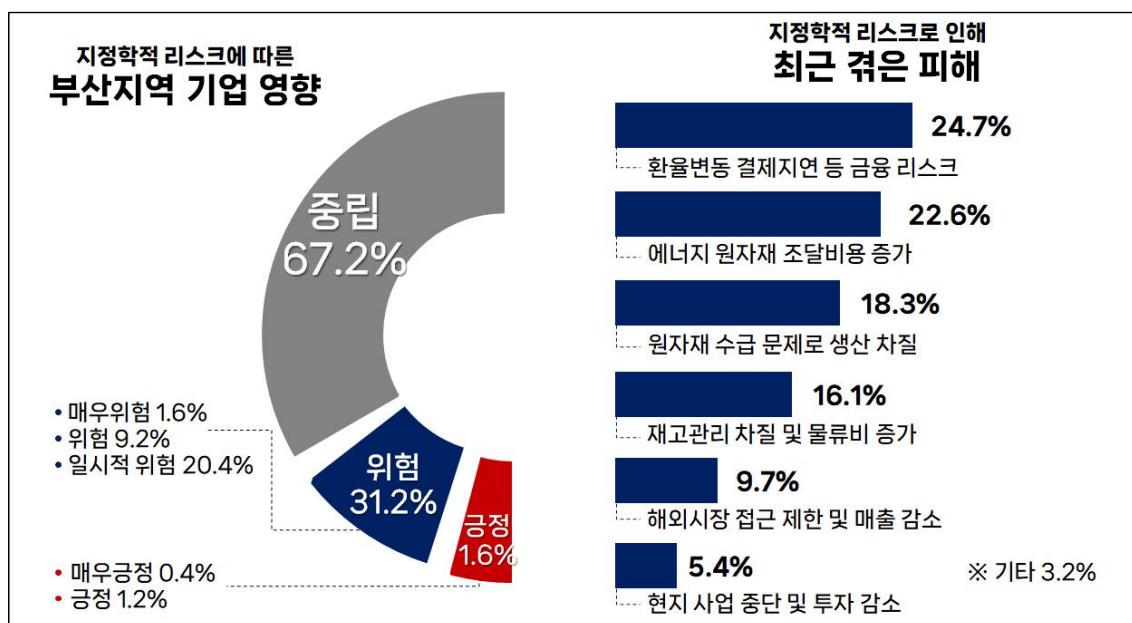
## 5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

-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역기업 대부분이 ‘큰 영향 없음’ (67.2%)
- 한편, ‘일시적 실적저하’ (20.4%), ‘경쟁력 저하’ (9.2%), ‘사업존속 위협’ (1.6%)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위험을 체감하는 기업 비중도 31.2%로 나타남
- 특히, 對中 수출 및 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겪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

○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‘환율변동 결제지연 등 금융 리스크’ (24.7%) 최다

- 이외에도 ‘에너지 원자재 조달비용 증가’ (22.6%), ‘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’ (18.3%), ‘재고관리 차질 및 물류비 증가’ (16.1%), ‘해외시장 접근 제한 및 매출 감소’ (9.7%), ‘현지 사업 중단 및 투자 감소’ (5.4%) 등의 순

〈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및 피해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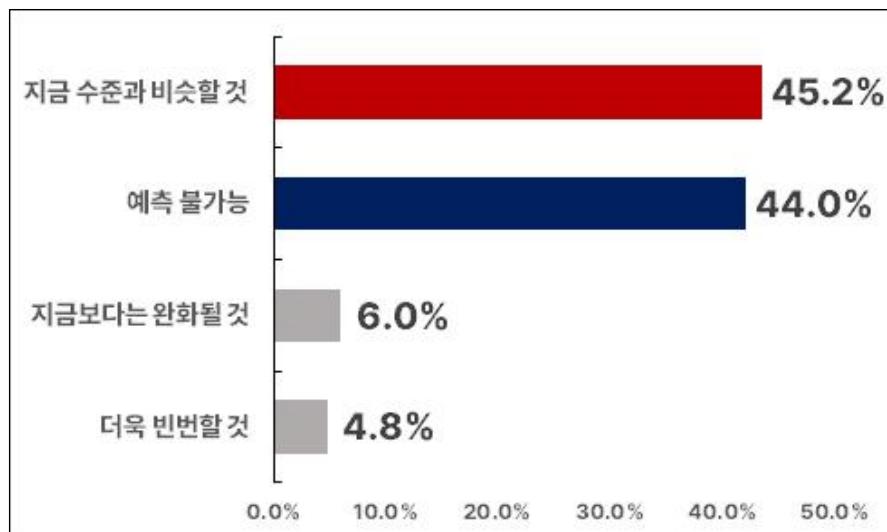
○ 지역기업 대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

- 지역기업 84.4%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대응책에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의 불확실성과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리스크 대응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됨
- 한편, 지역기업 15.6%만이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기업 운영에 변화를 꾀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를 기업은 신규 대체시장 발굴, 해외조달 부품 국내조달 전환, 대응조직 신설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

○ 지역기업은 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환경에 미칠 영향에 ‘현 수준과 유사’ (45.2%)로 전망

- 한편, ‘예측 불가능’ 비중도 44.0%를 차지하면서 미-중 갈등 지속 및 중동분쟁 심화 등 예측 불가능한 대외환경에 대한 우려를 보임

<향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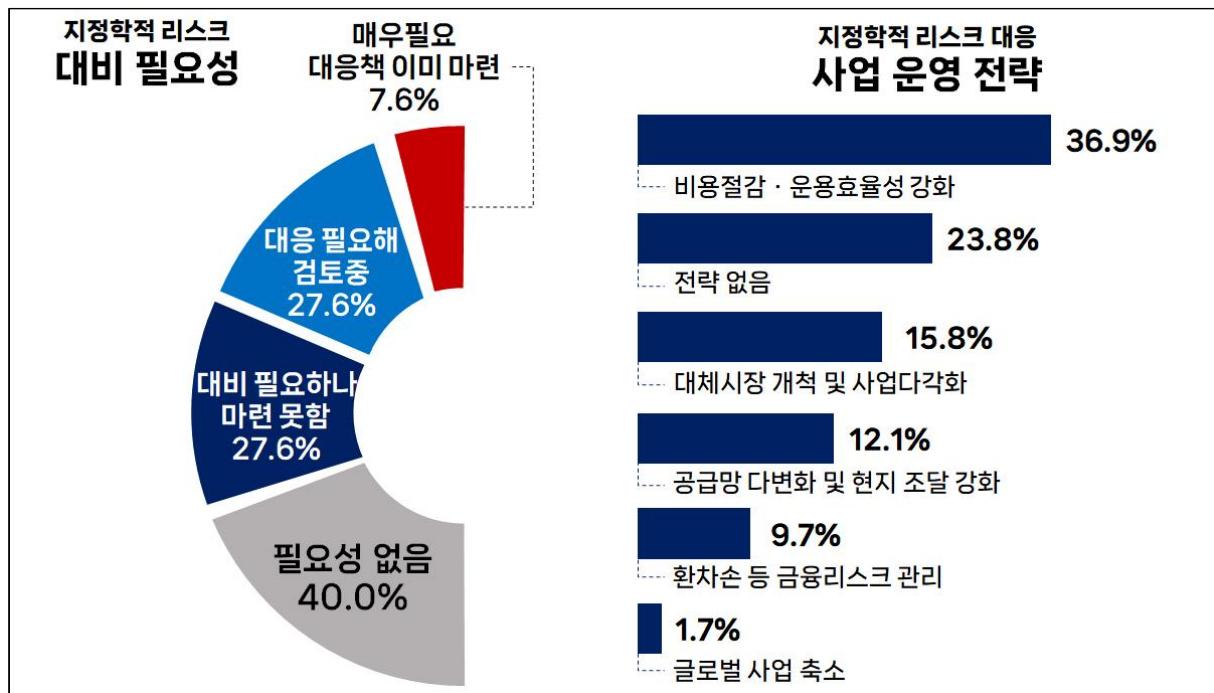


○ 지역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필요성 인식

-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필요성에 대해 ‘대비 필요 없음’ (40.0%), ‘대비 필요하나 마련 못함’ (27.6%) ‘대비 필요해 검토중’ (24.8%), ‘매우필요, 대비책 이미 마련’ (7.6%) 순으로 집계
- 지역기업은 원자재 수급 문제, 환율변동에 따른 금융 리스크, 물류비 증가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책 마련에는 공감하나, 신규 판로 개척의 어려움, 가용 자금의 한계 등으로 인해 대비책이 마련된 기업 비중은 7.6%에 불과

-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으로는 ‘비용절감 및 운용효율성 강화’ (36.9%)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
  - 이외에도 ‘대체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’ (15.8%), ‘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조달 강화’ (12.1%), ‘환차손 등 금융리스크 관리’ (9.7%), ‘글로벌 사업 축소’ (1.7%) 등의 순

<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 필요성 및 대응 전략>



##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(BSI)

구분	실적		전망	
	'24.2/4분기	'24.3/4분기	'24.3/4분기	'24.4/4분기
체감경기	86	→ 86	80	→ 81
매출액	85	→ 86	93	→ 82
영업이익	81	→ 86	84	→ 83
설비투자	88	→ 89	96	→ 90
자금사정	86	→ 86	93	→ 90
음·식료품	44	→ 80	63	→ 60
섬유제품	69	→ 107	94	→ 86
의복·모피	53	→ 60	67	→ 67
신발제품	73	→ 67	47	→ 67
화학·고무	96	→ 85	67	→ 115
1차금속	88	→ 72	96	→ 64
조립금속	100	→ 71	95	→ 57
전기·전자	119	→ 110	106	→ 95
기계·장비	92	→ 103	104	→ 93
자동차·부품	83	→ 75	90	→ 71
조선·기자재	103	→ 110	100	→ 100